

백중은 선망부모 천도 '효 사상 실천'하는 날

전국 사찰, 11일부터 우란분절 특별기도 입제

부모님과 조상에 효를 실천하는 날인 백중(百中)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오는 11일을 전후로 우란분절 특별기도 입제에 들어간다. 예로부터 사찰에서는 하안거 해제일이자 음력 7월 15일(양력 8월 28일) 백중을 맞아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대다수 사찰이 영가를 천도하기 위한 백중 49재 기도를 올리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스님), 부산 흥법사(주지 심삼스님), 대구 한국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스님),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스님), 통도사 부산포교원 불지사(주지 상진스님) 등은 선지식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하며 우란분절과 효사상의 의미를 되새긴다.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스님)는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을 법사로 초청한 가운데 백중기도 회향에 맞춰 수행 정진중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승(供僧)법회를 연다. 공승법회에서는 공양물과 더불어 의약품, 생필품, 보시금 등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양물로 올리며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줄 것을 기원하게 된다. 주지 현암스님은 "매년 백중을 맞아 3개월간 안거 수행한 스님들께 불자들이 공양을 올린 공승법회가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면서 "100일 기도를 회향하는 불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의 참뜻을 되새기

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스님)는 효행 근본도량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백중, 생명살림기도'를 봉행한다. 오는 10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용주사에서 49재 기도와 함께 영가천도등 공양, 부모은중경 인경 공양 등을 올린다.

백중은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먼저 가신 부모님의 명복을 받고 유연무연 중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날이다. '죽은 이의 영혼이 악도에 가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당한다'는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ullambana)'를 한역한 '우란분절(盂蘭盆會)'에서 비롯돼 '우란분절'이라고도 부른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에 들어가 마침내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이뤘다는 효행이야기에서 유래했다.

<목련경>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에게 음력 7월 보름인 우란분절에 수행승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려 재를 베풀어 어머니를 정도에 왕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처럼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해낸 일화로부터 음력 7월 15일이 되면 선망부모를 아귀의 고통에서 천도하기 위해 천도재를 지내는 풍습이 시작됐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한국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메르스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스님과 종교지도자들이 국립의료원에 마련된 음압텐트를 둘러보는 모습.

“메르스 극복위해 목숨 건 헌신 감사”

총무원장 스님과 종교지도자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격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지난 6월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의료원 방문으로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을까 고민을 거듭했던 총무원장 스님은 의료진들에게 “메르스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어려움은 있지만 의료진들이 노력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종교계도 메르스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메르스 사

태를 계기로 의료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료진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꼭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명옥 국립의료원장은 “바쁘신데 귀하신 걸음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교계 어르신들이 와주셔서 의료진들이 힘이 난다”며 “마지막 환자 한 분까지 (폐유하도록) 긴장을 풀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믿어 달라”고 밝혔다. 또 안명옥 원장은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난국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종교인들이 앞장서주신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립의료원내 마련된 임시진료소와 음압텐트를 둘러본 종교지도자들은 국립의료원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국립의료원은 총지협에 감사장을 전하며 화답했다. 메르

스 환자 국가 지정 격려방향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박남수 천도교 교령, 정한효 유교 성균관장 직무대행이 함께 했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39사단 안국사 일방 철거 절대 안돼”

존치위, 기부당시 약속 이행 촉구

육군 39사단 부대 이전과 부지개발 계획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인 군법당 안국사를 지키기 위해 창원지역 불교계가 나섰다. 안국사존치위원회(총괄본부장 성공스님)는 지난 6월 2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국사는 조계종과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건립한 군법당으로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다는 기부채납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총괄본부장 성공스님은 성명서에서 “기부채납 당시 약속에 따라 조계종과 불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와 국방부는 종단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법당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공스님은 이어 안국사 철거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처럼 불자의 성원과 염원이 담긴 안국사의 존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창원시와 국방부는 39사단이 이전한 뒤 약 6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과 공영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기부채납 당시 사찰을 영구히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이전하는 함안에 새로운 군사시설을 조성했으므로 안국사 철거는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다. 성공스님 등 안국사존치위원회 스님들은 기자회견 후 시정실로 이동해 한홍준 창원시 도시정책국장과 부대 이전 담당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종단과 창원시 간의 대화체널을 만들어 안국사 철거문제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갖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안국사는 1965년 건립한 안심정사가 화재로 전소되자 1990년 당시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 주지 지형스님의 발심과 통도사, 범어사 등의 지원과 수많은 불자들의 정성으로 조성돼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사찰로 그동안 군정병과 지역불자들의 귀의처가 돼 왔다.

권순학 경남지사장 gyongnam108@bulgyo.com

8일 제49차 원로회의 개최

제202회 중앙총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중헌 개정안’을 다룰 원로회의가 열린다. 지난 4월 제48차 원로회의에서 중헌개정안을 보류한 바 있어 이번 원로회의에서 무난히 인준될지가 관건이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스님)는 오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49차 회의를 열고 중헌개정안 인준의 건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제202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중헌개정안은 원로회의가 제안한 의견을 중앙총회가 마련한 개정

안으로 미등록 사설사암과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을 명확히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원로회의 명칭 현행대로 존치 △제9조 3항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를 ‘권리제한을 한다’ △제94조 4항 사설사암의 창건주의 권리는 중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를 ‘승계한다’ 등으로 명확히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중헌에 소의율을 반영하는 내용과 멸빈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중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중헌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社告

**인도 빈곤층 무료 안과 수술지원
‘국제광명나눔’ 활동 함께 해주세요**

누군가 세상의 빛을 나누는 해도
그 빛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한국불교가 인류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체대비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부처님의 나라이며, 세계 최빈국인 인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수술 나눔 활동을 지원합니다.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기슭의 아삼 극빈층 중 생활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해 영영 세상의 빛을 잃어가는 아들에게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광명의 빛을 나누고자 합니다. 환경과 영양의 문제로 백내장, 녹내장이 깊어져 실명위기에 있는 아삼 극빈층 7~8명을 매월 선정, 연인원 100명을 목표로 의료 나눔을 진행합니다.

어둠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광명의 빛을 찾아주는 거룩한 불사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주최: 불교신문사 / (사)파라미타정초년연합회
■ 주관: 세종파라미타 / (사)한인교류회
■ 문의: (044) 865-7102, 010-8720-8923

SHARE THE LIGHT
한국-인도 빛을 나누는 활동

■ 동참계좌:
후원계좌 국민은행 455801-04-330562
(예금주: 세종파라미타)

조계종 신도의 기본, **발심품계(신도증)**로 시작합니다

신도품계 첫 번째 단계

신도님, 혹시 2015년 교무금 영수증 있으세요?

신도교무금은 납부는 신행생활의 첫걸음이며, 신도의 의무입니다.

영수증 (신도증)

신도교무금 납부는 꼭 재적사찰에만 해야 하나요?
조계종 신도등록 사업은 재적사찰 갖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도교무금 납부는 재적사찰에서 하시도록 관련 중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재적사찰 참여하시면 신도교무금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 재적사찰 방문이 어려운 신도님께서는 신행생활이 가능한 조계종 사찰에서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도교무금을 매년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 할 수 없나요?
신도교무금 납부는 신도의 의무사항으로 매년 기한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도교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재적사찰을 통해 밀린 교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도교무금은 어디에 사용 되나요?
신도님들께서 납부하신 신도교무금은
• 재적사찰: 신도교육, 신도관리, 포교활동, 신도회 운영 등을 위한 기금
• 종단: 신도포교사업, 신도교육사업, 복지사업 등 종단 신도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 됩니다.

발심품계(신도증)는 매년 새로 발급을 신청해야 하나요?
발급받으신 발심품계(신도증)는 재적사찰 변경, 분실, 명기되어 있는 내용 변경 등 이외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다시 발급 받으실 필요없이 재적사찰을 통해 매년 신도교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도교무금은 어디에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종단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제6조 교무금 납부 시기)에 의거하여 신도는 2/4분기 말까지 교무금을 재적사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도교육 및 품계>

입교 신도등록 신도회 입회
발심품계등록
전문교육 신행활동 부동품계수여
일반/전문 포교사 자격취득 종단인중 제반 포교자격 취득

기본교육 신도회·신행 활동
행도품계수여
재교육 신도인원 활동 (재학생, 신행동, 봉사역, 안 등) 경중후 부동품계수여
지도자교육 신행지도활동 신해품계수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문의 : 02.2011~1996, 1904